

3월 사양관리

집필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최순호, 유호백

일반 사양관리

환기, 일광욕 신경 쓰되 밤낮 기온차 유의해야

봄에는 모든 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싹이 트고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처럼 동물들 역시 겨우 내내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털고 일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는 시기이다. 이때 목장에서조차 겨울동안 미루고 하지 못했던 사양관리 및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축사 환경정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축사 내·외부 청소를 통해 각종 병원성 미생물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겨우내 섯바람을 막기 위해 쳐놓았던 보온덮개, 비닐 및 방풍막 등을 제거하여 우사 안팎의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밀폐에 의해 환기가 불

량한 경우 암모니아 가스, 이산화탄소, 먼지, 습기 등이 배출되지 않아 호흡기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운동장 사정을 고려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내놓는 것이 좋다.

봄의 한낮 기온과는 달리 여전히 밤에는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크고 우사 내외 기온차이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며, 호흡기, 설사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송아지 및 육성우의 성장 지연 및 착유우의 유량 감소로 나타나게 되므로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양관리

3월 산유량 증가 대비해 사료급여량 점검 필요

3월은 동절기보다 일조량이 증가함으로 산유량 증가에 대비하여 축군의 사료급여량을 점검해야 한다.

일일 사료섭취량을 관찰하여 젖소가 사료를 최대한으로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한다. TMR 사료 급여 후 잔량이 5~10%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유초기 착유우의 경우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의 급여량을 지나치게 증량하게 되면 조·농비 불균형으로 인해 산독증에 걸릴 수 있고, 이는 발굽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착유 중인 소는 변화에 민감하므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바꿀 때에는 반추위 내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에 걸쳐서 배합사료 기준, 일일 300g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착유우의 경우 정기적인 MUN 분석치를 점검하여 정상수준인 12~19mg/dl가 되도록 사양관리를 한다. 또한 부존사료자원을 활용하여 비유단계별 적정 영양공급을 해 주고 중 조, 면역기능 강화 비타민, 생균제, 효모제 등을 급여하여 소화율을 증진시켜 반추위 내 정상적인 발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더불어 젖소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음수량이 증가하는데, 최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충분한 물을 급여해야 한다. 겨울동안 가온 급수기를 통해 온수를 급여하다가 성급하게 일찍 전원을 차단하여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완료 후에도 철저한 방역 지속

지난달 전북지역에서 돼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방역의 긴장감과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라도 차단방역 및 소독 등 농가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전에 감염된 경우 항체 형성기간(약 2주)과 잠복기간(약 2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임상증상은 최대한 4주까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사에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임상증상 관찰은 철저히 하고, 축산관련 모임·회합은 금지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

자가 조사료 생산 및 재배계획 세워야

준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신청을 낙농육우협회에서 받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낙농경영을 위해 최대한 자가 조사료 생산 및 재배계획을 세운다.

신청종자로는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귀리,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유채 등이므로 지역별 작부체계를 고려하여 종자를 사전에 확보해 둔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 추진되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등 조사료관련 사업을 잘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초지관리는 해동 후 땅의 수분이 적당해야 작업이 가능하므로 3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목초파종 및 손상된 초지에 보파하되 3월 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월 하순경에 연간 시비량의 1/3 정도를 시비한다. ㉞

